

위험성평가와 보건관리



이현석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의학박사·산업위생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산업 '보건' 부문의 위험성평가

지방 관서에서 산재예방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늘 취약계층이나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와 고충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는 노동인구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플랫폼 노동, 신규 화학물질 수입, 기후변화 등에 의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전보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20년)'을 분야별로 수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산업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업무상질병 발생 단계별 관리강화, 정신건강 보호 확대, 자연환경적·생물학적 유해요인 관리 방안 추진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경남 창원, 양산 및 경기 이천 소재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화

학물질에 중독(급성독성간염)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전통적인 직업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또한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을 하고 그 책임도 지도록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는데, 이 정책의 핵심수단이 위험성평가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대체하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노·사 참여, 개선대책의 적정성 및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자체 노력 내용을 수사자료에 적시하여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험성평가 시 사업장의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

트레스 등의 안전·보건 분야의 모든 유해요인 외에도 개인 특성(고령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등에 따른 모든 예견 가능한 위험요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주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한 후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대재해 예방만을 위한 제도로 잘못 인식한 사업장에서는 위험요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개선 효과(결과) 또한 바로 확인될 수 있는 끼임·추락·부딪힘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90%가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은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직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사업장의 대부분은 사업주 의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성과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산업보건 부문은 등한시될 우려가 크므로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올해 초부터 고위험 사업장 1만 개를 선정하여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하였다.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안전·보건 위험요인 전반에 대해 점검한 후 지도·교육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 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는 등 점검과 계도를 병행하였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1만6,000개소를 대상으로는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 역량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중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 사업 및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등을 통한 노동자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시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업종·직종, 유해·위험요인 또는 취약계층별 위험성평가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노동자 건강증진과 직업병 예방에 한계가 있다. 사업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임을 명심해야 하고, 노동자들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